

## 연금시장리뷰 9호

### 바람직한 노후설계의 방향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성대학교 : 금융보험학과 신종욱 교수 (031-299-0870, jsynn@uhs.ac.kr)

## □ 바람직한 노후설계의 방향

전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 속에서 노후준비 혹은 은퇴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바람직한 은퇴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노인으로 변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더욱 더 가속도를 낼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노인들의 위상이 더욱 더 좁고 낮아진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노인이 연륜을 통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정보가 인터넷의 보급 등을 통한 이른바 “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점점 더 그 희소가치를 잃어가기 때문이다. 한편 세상의 현실이 이렇게 변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인간의 본성과 욕구는 변하지 않고 존재하며 이에 따라 노후에 발생할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는 개인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리라 전망된다.

21 세기에 있어 적절한 은퇴설계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면 21 세기의 키워드는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가장 걸맞는 단어로서는 젊음이 연상이 된다. 따라서 21 세기의 은퇴설계는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1 세기의 키워드 혹은 21 세기형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젊음’을 보유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은퇴 후의 경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은퇴 및 노후에 있어 경제적 문제는 당장 피부에 와서 닿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서 생존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기본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상기해야 할 사실은 인간에게 경제적 문제는 비록 기본적인 문제지만 이것에만 주목한 나머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자금을 모으는 일에만 집착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먼저 인간의 행복은 결코 ‘돈’만을 통해 달성되지 않는데다가 노인들이 겪는 문제 중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한 대부분의 것들은 ‘돈’보다는 ‘일’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자금의 충분한 축적 보다는 어쩌면 제 2의 캐리어의 준비 등과 같은 일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한편 노후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은 먼저 노후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및 장수위험 등의 경제적 리스크로부터의 안전성, 자금사용의 편리성, 세금문제, 세제혜택의 활용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으로 노후자금용 포트폴리오를 짜는 경우 가장 근접한 금융상품 혹은 제도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연금제도와 상품들,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후자금을 위한 포트폴리오는 연금포트폴리오로 불러도 무리가 없으며 이 경우 노후자금 마련은 연금을 위주로 하되 노후자금 관련 두 번째 원칙인 자금의 분산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연금제도와 상품으로부터 골고루 노후자금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 1. 점점 중요해지는 은퇴설계

-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급되었던 과거에 삶의 경험을 통해 젊은이들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영향력과 위치를 가지고 있던 노인들이 인터넷의 등장 등 정보화시대를 맞아 그 지위를 잃어가고 있음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 영화는 2008 년 아카데미 최다(8 개)부문 노미네이트된 영화의 제목으로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 노인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음
    - .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의 모습은 당면한 폭력과 살인이라는 사회적 문제 속에서 결국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고 이와 대비되는 배경은 노인에 대한 기대와 시선 없이 젊은이들에 의해 바쁘게 움직여나가는 현실의 모습임
    - . "There is no country for old men" 이 영화의 제목은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노인의 현실을 가장 압축해서 표현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음
  - 왜 노후준비와 이른바 은퇴설계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노인으로 변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 . 자세히 이 세상을 관찰해보면 이 현실의 세상,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젊은이들에 의해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세상임
    - . 영화관, 공연장,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등등 사람이 북적이고 즐길만한 곳은 모두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와중에 백발을 한 한 두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끼워져 있을 뿐임
    - . 물론 노인들로 가득 찬 장소들도 있음. 노인정, 복지회관 혹은 공원 같은 곳들인데 마치 미 대륙의 “인디언 보호구역”처럼 보호 보다는 구분의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옴
  -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더욱 더 가속도를 낼 것이라는 사실로서 노인들의 위상이 더욱 더 좁고 낮아진다는 것임
    - .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즉, 과거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노인들이 대 접을 받던 세상이 존재해왔는데 그 배경에는 당시의 노인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음
    - . 산이나 바다 등으로 격리된 과거 세상은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지금처럼 인터넷 등을 통해 구할 수 없었으며 그나마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노인들이었음
    - . 이 노인들은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의료, 조리, 기상, 경작 등에 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굴복하고 대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임
    - . 그러나 지금 세상은 첨단 지식과 각종 최신장비는 젊은이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외모조차 가지지 못한 노인들에게 젊은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가까이 다가오도록 만들 수 있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 . 한 마디로 표현하면 개인의 이기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 매력이 없어진 것임

○ **한편 세상의 현실이 이렇게 변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의 본성과 욕구는 변하지 않음**

- 인간은 노인이든 젊은이든 나이에 관계없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원하고 바라는 것은 거의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엄연한 현실이 있음
  - . 노인도 먹고 마시고 또한 젊은이처럼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함
  - . 즉, 노인이 되면 마치 감정 없는 로봇처럼 아니면 세상을 초월한 히말라야의 도인처럼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늙어도 여전히 20 대처럼 욕망을 가진 '나'는 '나'로서 존 재하고 있고 아울러 '나'는 존엄한 하나의 인격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함
- 따라서 닥쳐올 현실을 이해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은퇴란 인생의 구덩이가 되기 십상임
- 그리고 은퇴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음
  - . 예를 들어 은퇴 후 아내 뒤만 따라다니는 "나도죽(아내가 어디 간다고 하면 나도)", "젖은 낙엽죽(빗자루에 붙은 낙엽처럼 아내로부터 떨어지지 않음)"에 관한 이야기, 혼자 바쁘게 살아온 시절동안 군말 없이 견뎌준 아내가 고마워서 은퇴 후 쇼핑, 여행 등에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하였건만 3 개월이 지난 후 와이프로부터 "이제는 제발 혼자 나가서 놀아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사례들임
- 비유컨대 은퇴와 노후란 인생의 정상을 밟고 하산하는 도중으로서 조금씩 어두워지는 시간이며 더구나 우리 모두는 두 번 경험해 보지 못한 초행길을 가는 사람임
- 따라서 만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기가 인생의 불행을 깊게 할 구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한 한 메워주는 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임

○ **은퇴설계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셰익스피어의 희극제목처럼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All's well that ends well)" 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음**

- 인생은 전반부보다 후반부에 인생평점의 가중치가 많이 실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음
  - . 인생은 결코 평균을 따지지 않음
  - .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왕자와 거지' 중 거지가 된 왕자와 왕자가 된 거지 중 누구를 원하느냐고 물어보는 경우 왕자와 거지 둘을 합하여 2 로 나누면 이른바 중인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누구도 나중에 거지가 되기를 원치 않음
  - . 만일 화려한 과거를 살았더라도 늙어서 외로움과 궁핍에 처한다면 남들의 평가를 떠나서 자신을 바라볼 때도 지나간 화려한 과거가 결코 위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현재와 대비가 되어 공허함만 가중시킬 뿐임
- 마지막으로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음
  - . 선배들의 은퇴가 인생의 부록이었다면 우리들의 은퇴는 본문에 삽입되고 있음
  - . 이름조차도 은퇴가 아닌 제 2 의 인생으로 바뀌는 중이고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자기경영이 점점 갈수록 인생의 후반부관리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함

## 2. 21 세기를 위한 은퇴설계의 개요

### ○ 제대로 된 은퇴준비를 실행에 옮김에 있어서는 두 가지 극히 현실적인 난제가 기다리고 있음: 은퇴에 대한 현실감부족과 당면한 현실문제의 긴박성

- 첫 번째는 은퇴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담배를 사랑함으로써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들어 보이는 옆집 아저씨의 문제라는 인식임
- 사튼(Sarton)은 이런 현상과 관련하여 노후는 '또 하나의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노후란 우리가 가보기까지는 흥미를 갖지 않는데다가 젊은이들과 함께 중년들조차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는 생소한 언어를 사용하는 또 하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음
- 이처럼 노후문제에 대해 자신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현실적 인식은 노후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음
  - 구체적으로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노후대비용 저축을 미루는 문제점은 투자에 있어 시간이 가진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노후준비에 있어 유일한 지원군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상당한 손실이 아닐 수 없음
  - 그리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등 제대로 된 은퇴준비 혹은 제 2 의 캐리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10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은퇴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거의 불가능해짐
- 두 번째는 10 년 후 닥쳐올 은퇴문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당장 내일이 더 긴박하다는 것임
- 당장 닥쳐오는 현실생활의 문제가 도외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임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는 은퇴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그 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함
  - 은퇴 혹은 제 2 캐리어의 준비는 제 1 캐리어를 살아가는 도중에 꾸준히 계획하여 꾸준히 오랫동안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 준비는 일정한 량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몫이 아니라 세월이 걸리더라도 시간을 만들어내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왓슨 와이엇(Watson Wyatt)의 버논(Vernon) 부회장은 "그 동안 우리가 '가진 자' 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로 분주했는데 향후 50 년 동안은 사람들을 바람직한 노후의 삶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구분하는 경우 그 기준은 이를 위해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가 될 것" 이라고 언급하며 준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 21 세기에 있어 적절한 은퇴설계의 개요: 21 세기의 키워드 혹은 21 세기형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젊음'을 보유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먼저 삼성경제연구소는 한 보고서(새시대, 새 조류, CEO)에서 21 세기의 키워드를 발표
  - 응축의 시대(작은 것이 아름답다), 유연의 시대(부드러운 것이 강하다), 공유의 시대(나눌수록 커진다), 모험의 시대(남이 가지 않은 곳에 길이 있다), 특이의 시대(뛰는 인재가 일을 낸다), 지식의 시대(보이지 않는 것이 돈이 된다), 기본의 시대(태풍의 핵은 고요하다) 등임
- 이 키워드의 상당부분은 변화 그리고 젊음으로 요약이 가능함. 즉, 21 세기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혹은 앞서 나가 꾸준히 변화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에 가장 걸 맞는 단어로서는 젊음이 연상이 됨
- 한편 은퇴설계라고 하면 흔히들 노인들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봉사나 취미활동 등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적당히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은퇴설계는 그야말로 20 세기형 은퇴설계이며 은퇴 후 사망까지의 시간이 길지 않았던 시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21 세 현대에 있어 노인들은 비록 과거의 연령기준으로 봤을 때 노인이지만 건강, 지적 적응능력 등에 있어 결코 '노인'이 아니며 게다가 왕성한 사회참여 욕구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21 세기의 은퇴설계는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1 세기의 키워드 혹은 21 세기형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젊음'을 보유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젊은 '노인'으로 사는 방법과 관련하여 과거 유명한 코미디언 중의 하나인 루실 볼은 젊게 사는 비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말하였음
  - 첫째, 적게 먹고(소식) 둘째, 정직한 삶을 살되 셋째, 나이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임
  - 우스개 소리처럼 들리지만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음
- 궁극적으로 행복한 노후에 관심을 두는 21 세기형 은퇴설계는 과거처럼 "늙어 죽을 때까지 돈이 바닥나지 않도록 하는" 재정문제에만 치중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제 2 캐리어) 관리, 가족관리, 건강관리 및 재정관리 등 종합적 설계를 필요로 함
  - 위에서 나이에 대해 거짓말한다는 이야기는 나이에 순응(?)하지 않는 외모관리와 왕성한 활동의욕을 전제로 한 것임
  - 인간의 직업관리와 가족관리 등은 행복이라는 것이 마치 동화에 나오는 키다리 아저씨처럼 높은 담을 가진 저택에 산다고 해서 즉, 재정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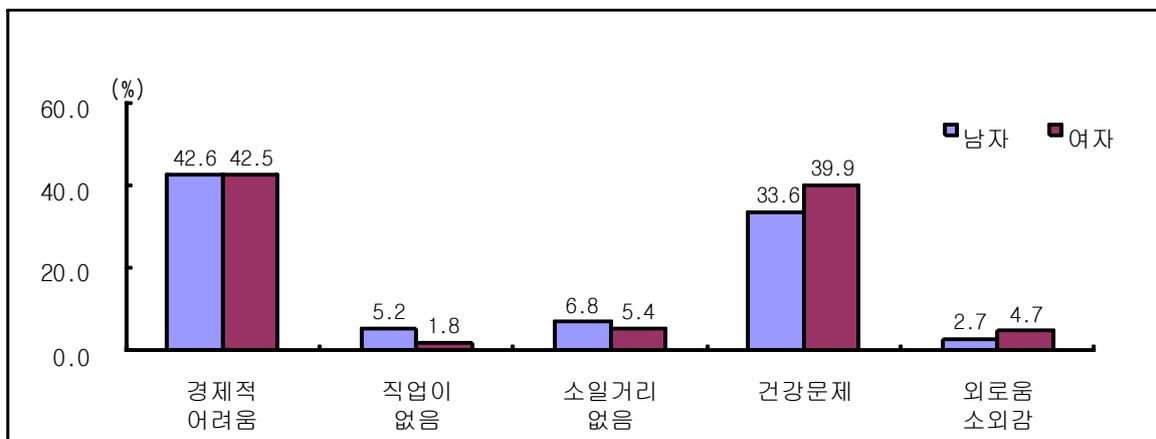
- 직업(제 2 캐리어) 관리란 단순히 왕년에 하던 것을 좀 다운그레이드하거나 적절히 변형해서 계속 직업으로 활용하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님
- 예전에 하던 일을 또 연장해서 우려먹는 것은 그다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일,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에 새로이 도전해 보는 것을 말함
- 꿈의 효과는 상상 외로 큼. 꿈은 달성여부와 상관없이 달성에 준하는 흥분과 기쁨을 제공하며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며 새로운 정신과 육체를 가진 나를 창조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음
- 그리고 만일 도봉산(지하철 1 호선)으로 가고 싶은 꿈이 있다면 2 호선타고 종점까지산역까지 버티다가 내릴 것이 아니라 신도림에서 갈아타야 함

### 3. 은퇴와 재정설계

○ 노후의 경제적 문제는 일반적인 재정설계의 관점으로 보면 자칫 빠뜨리기 쉬운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안전성,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위험의 고려, 세제혜택의 활용 등임

- 은퇴 재정설계는 은퇴설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다음의 그림을 보면 노인들이 겪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60세 이상) >



자료 : "2009 사회통계조사", 통계청 홈페이지

- 한편 본인 스스로 은퇴자이자 워싱턴 포스트 컬럼 니스트였던 스탠 힌든(Stan Hinden)은 은퇴는 마치 먼 나라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면서 이어 먼 나라를 여행한다면 준비물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음
  - 그의 대답은 이런 여행을 떠나면서 옷가지 몇 개만 달랑 가지고 떠나지 않듯이 최소 한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임
  - 그 하나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민영의료 보험 등 노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라고 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은퇴 및 노후에 있어 경제적 문제는 당장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생존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기본적인 일 임에 틀림없음
- 물론 우리가 상기해야 할 사실은 인간에게 경제적 문제는 비록 기본적인 문제지만 이에만 주목한 나머지 죽을 때 까지 쓸 수 있는 자금을 모으는 일에만 집착해서는 곤란함
  - 왜냐하면 먼저 인간의 행복은 결코 '돈'만을 통해 달성되지 않는데다가 노인들이 겪는 문제 중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한 대부분의 것들은 '돈'보다는 '일'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임

○ 노후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흔히들 쉽게 노후자금 또한 다다익선이라고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임
  - 그 이유는 우선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살림에 많이 저축하는 것이 그리 현실성도 없지만 노후의 경제적 문제는 일반적인 재정설계의 관점으로 보면 자칫 빠뜨리기 쉬운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첫 번째로 은퇴자금은 노후의 생명선인 만큼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함.
  - 그런데 여기서 안전하다는 말은 금고가 튼튼한 것(예: 믿을만한 금융기관)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우선 자금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보관되어 있어야 함.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자금에 예기치 않은 투자상 문제나 금고의 부실문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보충이 되므로 보다 안전해짐
  - 또 다른 하나는 본인의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로부터의 역풍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노후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나 예상보다 너무 오래 사는 문제가 이런 것 들인데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노후자금을 손상시키고 줄이는 악영향을 미침
- 두 번째로 지극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노후자금의 경우 월급처럼 꼬박꼬박 입금되도록 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덜어주며 그리고 해약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자식들이나 남들이 손을 대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속함
- 세 번째는 은퇴 후 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를 고려해야 함 세금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노후에 있어 돈의 가치는 젊었을 때에 비해 더욱 커지는 만큼 가능한 한 이 문제를 미리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함
- 마지막으로 노후자금은 투자기간이 장기에 걸치는 만큼 투자의 수익성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20-30 년의 기간은 사소한 수익률 차이도 매우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임

-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수익률은 높이면서 투자위험을 줄이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노후용 투자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물론 투자수익률과 소득세율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가정하에서의 은퇴 자금을 위한 세제혜택은 일반저축에 비해 20%를 훨씬 넘는 적립금의 차이를 만들어 내며 이에 따라 세제혜택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함

#### 4. 은퇴 재정설계와 연금

○ 노후자금을 위한 포트폴리오는 연금을 위주로 하되 노후자금 관련 두 번째 원칙인 자금의 분산원칙 즉,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군데서 골고루 나오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 위에서 언급한바 원칙들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으로 노후자금용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위의 몇 가지 원칙들을 만족시키는 금융상품 혹은 투자수단에 가장 가까운 것을 우선 찾아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연금제도들,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연금은 위에서 언급한바 그리 넉넉하지 않을 우리의 노후재정을 위협하는 몇 가지 경제적 위험 즉, 예상보다 오래 살지 못할 장수위험, 그리고 물가의 상승이 고정 수입의 가치를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음
  - 예를 들어 종신형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장수위험이 쳐들어와도 문제가 없으며 현재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이 와도 연금수급자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음
  - 참고로 연금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면 적립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와 함께 적립금의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수령시까지 연기해주는 것을 말하며 개인연금 중에서 저축성보험(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의 경우 비록 소득공제는 없지만 적립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면제해 주고 있음
- 한편 희망수익률 달성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경우 부동산이나 펀드 등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고 향후 필요하다면 연금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노후의 행복은 사전준비여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과 아울러 연금가입은 그 자체가 노후에 대한 관심과 계획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에 근거했을 때 연금상품에 대해 비중을 높이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님
  -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은퇴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 즉 준비된 자발적 은퇴냐 아니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은퇴냐의 여부가 은퇴 후 행복감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임

- 또한 연금은 그 자체로 쇠나 구리 같은 금속을 가지고 금을 만드는 기술인 연금술로 불려도 좋을 능력을 가지고 있음. 그 이유는 젊은 날 연금상품에 저축하는 돈 만원은 기껏해야 구리 정도의 가치를 가지겠지만 노구를 이끄는 그 날은 금의 가치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임
- 결론적으로 노후자금을 위한 포트폴리오는 연금포트폴리오로 불려도 무리가 없으며 이 경우 노후자금 마련은 연금을 위주로 하되 노후자금 관련 두 번째 원칙인 자금의 분산방법에 대해서만 논하면 될 것임
- 연금제도(상품)별 배분 혹은 분산에 대해 언급하자면 일단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군데서 골고루 나오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 그 이유는 우선 자금의 분산을 통한 안전성 제고도 있지만 세 번째 원칙인 장수 및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방어를 위한 기능 역시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임. 예를 들어 개인연금이 담당하기 힘든 인플레이션위험은 국민연금을 통해 어느 정도 커버가 됨
- 그런데 연금은 한 가지 문제가 있으니 바로 환금성 이른바 유동성문제임
  -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지만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해약이 불가능하고 직장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의 경우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적립금을 꺼내 쓰기가 쉽지 않음
  - 그리고 개인연금의 경우도 10년 이하의 적립기간에 있어서는 중도해약에 따른 경제 적 불이익이 있음
  - 따라서 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어느 정도 비상금을 비축해 두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내에 적립금 환수에 따른 문제가 별로 없는 적립식펀드 등을 포함시켜 퇴직자금의 일정부분을 담당케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 5. 맺는 말

- '어바웃 슈미트'나 '스트레이트 스토리'라는 영화를 보거나 혹은 주위의 이웃을 보더라도 은퇴라는 모습은 매우 암울하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임
- 그러나 은퇴에 관한 것은 나쁜 소식(bad news)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 좋은 소식(good news)도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난적이 무례한은 아니어서 밤중에 느닷없이 들어 닥치는 것이 아니라 예약을 하고 찾아온다는 것임
- 노후대비의 핵심을 세 단어로 말하라면 준비, 준비, 준비라고 말할 수 있음.
  -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문제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 동시에 우리 삶의 일부분인 이 은퇴라는 공허함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단어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음

협성대학교 신종욱 교수 (031-299-0870, jsynn@uhs.ac.kr)